

일제강점기 철도도서관 분류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ailway Bureau Library Classification in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여지숙(Ji-Suk Yeo)* · 오동근(Dong-Geun Oh)**

< 목 차 >

- | | |
|-------------------------|--|
| 1. 서론 | 4. 만철산하도서관분류표와 철도도서관
분류표의 비교분석 |
| 2. 철도도서관의 역사 | 4.1 만철산하도서관분류표의 특징 |
| 3. 철도도서관 분류표의 특징 및 변천과정 | 4.2 만철각도서관분류표와 만철다렌도서관 및
철도도서관분류표의 비교 |
| 3.1 편찬경위 및 특징 | |
| 3.2 변천과정 | 5. 결론 |

초 록

이 연구는 철도도서관분류표의 특징과 변천과정에 관해 조사하여, 일제 강점기 당시 철도 도서관에서 사용한 분류표와 해방 후 교통도서관에서 사용하던 분류표를 철도도서관의 역사와 관련하여 그 영향관계를 파악하였다.

주제어 : 철도도서관분류표, 교통도서관, 만철도서관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ajor changes in the Railway Bureau Library(RBL: Choldo Doseogwan) Classification, along with a comparative analysis with other related classifications used at that time. This study can make clear some differenc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lassification us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and its relation to the major classifications used after the independence of the Korea.

Key Words : Library classification, Railway Bureau Library Classification, Railway Bureau Library(RBL)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메일 주소)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odroot@kmu.ac.kr)

· 접수일 : 2004. 5. 19 · 최초심사일 : 2004. 5. 30 · 최종심사일 : 2004. 6. 7

1. 서론

철도도서관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나라에 설립된 두개의 관립도서관 중 하나로, 그 규모나 활동 면에서 조선총독부도서관에 버금가는 도서관이었다. 1938년 철도도서관의 장서수는 224,436권으로 당시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장서수 180,079권을 넘어서고 있으며, 1945년 해방 당시에는 23만권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철도도서관은 순회문고와 열차문고 등을 통해 철도가 연결된 지역으로 그 활동영역을 확대하였다. 열람인원수도 1938년 당시 184,239명으로 1일 평균 5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이 도서관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철도도서관이라는 명칭에 있어 특수도서관처럼 인식되기 쉬우나, 조선총독부도서관과 더불어 관립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할 수 있다.

현재 조선총독부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연결된 반면, 철도도서관은 해방 이후 교통도서관으로 연결되었으나 6.25 당시 소실되어 현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까닭에 철도도서관에 대한 기록은 단편적으로만 발견되며, 도서관계에서도 주요 관심 밖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여 철도도서관에 대한 여러 사실들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철도도서관 전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철도도서관이 당시 사용한 분류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일제 강점기 당시 철도도서관이 사용한 분류표와 해방 후 교통도서관이 사용한 분류표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철도도서관의 역사와 관련하여 분류표를 파악하여 철도도서관분류표가 영향을 주고받은 분류표와 분류표의 변천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한 철도도서관이 개관 당시부터 약 5년간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이라 함)의 관할에 있었으므로 철도도서관분류표와 만철산하도서관들의 분류표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단지 이 연구에서 제한점으로 남은 것은 일제시대 당시 철도도서관에서 사용하던 분류표는 6.25당시 도서관 건물이 소실된 관계로 원본을 입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일제시대 당시의 철도도서관 분류표는 철도도서관에서 발행한 분류목록에 게재된 것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철도도서관이 역사적으로 그 명칭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철도도서관의 명칭과 관련하여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철도도서관의 역사와 관련하여 분류표의 변천과정을 논의하는 부분에서는 그 분류표가 사용된 당시의 도서관명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외의 부분에서는 국내 도서관계의 여러 문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칭인 철도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2. 철도도서관의 역사

철도도서관의 분류표에 대한 분석에 앞서 이 장에서는 철도도서관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철도도서관은 조선국유철도를 만철이 위탁경영하기 시작한 첫해인 1917년도의 수익금으로 1920년 7월 21일 경성철도학교를 설립하고 그 안에 만철경성도서관을 동시에 개관하였다.¹⁾ 처음 장서는 겨우 7,000여 권에 불과하여 주로 관내에서 열람하는 정도였다. 그 후 점차 내용을 충실히 하여 관외대출 주의를 채택하여 지방순회문고, 호텔문고, 가정문고, 열차문고 등을 설치하여 전 선의 종업원 및 그 가족과 여객이 이용하도록 하는 한편, 각 과의 비치 도서의 구입 보관과 신문잡지취급을 아울러 실시하였다.²⁾

개관 당시 철도도서관은 경성철도학교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1923년 6월 5일 만철사 내의 기구 개혁으로 경성철도국이 설치됨에 따라 경성철도학교에서 분리되어 철도국에서 직접 관리하였다. 이후 1925년 4월 1일 조선국유철도의 경영이 조선총독부에 환원 이관됨에 따라 철도도서관이라고 개칭하고, 재단법인철도교양조성회로부터 도서의 기증을 받아 종전과 같은 방침으로 운영하였다. 1943년 12월 1일에는 조선총독부 행정기구개혁으로 교통국이 설치됨에 따라 교통도서관으로 개칭하였다. 해방 후인 1945년 군정이 실시되자 남조선미군정청 운수도서관으로 개칭하였고, 1946년 과도정부가 수립되면서 남조선과도정부 운수부 운수도서관으로 개칭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칭한 것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교통부 교통도서관으로 개칭한 것이다.³⁾ 이렇게 연속되던 철도도서관은 6.25때 완전히 소실되었다.⁴⁾ 이상에서 살펴본 철도도서관의 역사를 표로 만들면 <표 1>과 같다.

<표 1> 철도도서관의 역사

연도	명 칭	소 속	비 고
1920	만철경성도서관	남만주철도주식회사	개관
1925	철도도서관	조선총독부 철도국	조선국유철도 만철의 위탁경영에서 해제. 조선총독부로 경영권 이관
1943	교통도서관	조선총독부 교통부	조선총독부 행정기구 개편
1945	운수도서관	남조선미군정청 운수부	해방 후 군정실시로 도서관명 개칭
1946	운수도서관	남조선과도정부 운수부	과도정부 수립으로 도서관명 개칭
1948	교통도서관	대한민국정부 교통부	정부수립으로 도서관명 개칭
1950	교통도서관	대한민국정부 교통부	6.25 동란으로 소실

1) 古野健雄, “終戰前後の朝鮮鐵道圖書館,” 圖書館雜誌, 第59卷, 第8號(1965), p.49.

2) 철도청, 한국철도100년사(대전 : 1999), p. 282.

3) 교통도서관, 교통도서관안내(서울 : 교통도서관, 단기4282[1949]), p.1.

4) 古野健雄, *op. cit.*, p.51.

역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철도도서관은 당시 우리 나라의 역동적인 시대 상황을 반영하듯 소속이나 명칭에 변화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3. 철도도서관 분류표의 특징 및 분석

3.1 편찬경위 및 특징

철도도서관 분류표의 편찬 연도 및 그 경위는 당시 분류표를 입수할 수 없는 관계로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철도도서관이 개관된 1920년 당시의 주제별 열람도서통계가 작성되어 있으며 그 주제가 철도도서관 분류표의 주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개관 당시에 이미 분류표가 작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⁵⁾

앞서 살펴본 철도도서관 역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철도도서관은 만철의 여러 도서관 중에 하나로 설립되었다. 철도도서관이 개관되었던 해인 1920년 4월에 만철 관할의 각 도서관은 도서분류강목을 통일하도록 滿圖第一號를 제정하였다.⁶⁾ 이때의 도서분류강목을 비교해 보면 이후 철도도서관의 분류목록에서 나타난 강목과 거의 유사하다. 철도도서관이 개관할 당시의 명칭인 만철경성도서관의 개관일이 1920년 7월 21일 이므로, 개관 3개월 전에 이미 만철 관할 도서관은 통일된 분류표를 제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여러 정황이 비추어 볼 때, 철도도서관은 개관 당시 이 분류표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 분류강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장서분류목록에서 나타나는 철도도서관분류표는 0에서 9까지 10개의 주류를 가지고 있으며, 각 주류는 다시 10개의 목으로 구분되는 십진분류표이다. 분류기호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였으며, 주류의 분류기호는 한 자리이며, 강의 분류기호는 두 자리, 목은 세 자리이다. 그리고 분류기호는 현재 DDC와 KDC에서 기본적으로 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0'과 같은 형식적인 기호⁷⁾를 사용하지 않았다. 목 이하의 세목의 경우에도 지금의 DDC나 KDC처럼 소수점을 찍지 않았다. 또한 철도도서관분류표는 보조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철도도서관 분류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⁸⁾

5) 김정의, 일제하의 철도도서관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1984), p.29.

6) 滿鐵管理局 編, 滿鐵圖書館概況(大連: 昭和12年[1937]), p.26.

7) 오동근, DDC 연구(대구: 태일사, 2002), p.50.

8) 鐵道圖書館 編, 藏書目錄 第1卷(京城: 1929), p.1.

- ① 이 분류법은 십진법에 의거하였다.
- ② 특히 [朝鮮 및 滿蒙]에 관해서는 대체로 部門 [07] 중에 모이도록 하고, [조선철도]관계는 07과 0797 중이므로 여기에 모이게 하고 있다.
- ③ 정치, 경제, 재정, 통계, 사회, 공학, 건축, 미술, 운동, 상업, 교통, 철도, 운수 중에는 양서도 포함시켰다.

특징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철도도서관은 국내서와 양서를 동일한 분류표를 사용하여 분류하였고, 양서의 경우 분류표목을 영어로 표기하였으며 분류기호는 세 자리 다음에 콤마를 찍고 뒤에 0을 부기(,)해서 양서임을 표시하였다. 이는 철도도서관이 단일 분류표를 사용하여 국내서와 양서를 분류하면서, 양서를 분류할 경우 이를 분류기호로 표시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로 여겨진다. 당시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는 분류표를 신서부, 양서부, 고서부로 나누어 분류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해방 후 철도도서관은 교통도서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이와 함께 분류표 역시 새로이 편찬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통도서관 분류표의 주류와 강목은 철도도서관 분류표와는 매우 상이하다. 또한 교통도서관 분류표는 박봉석의 『조선십진분류표』를 참조하였음을 밝히고 있다.⁹⁾ 이 분류표 역시 십진식이며, 분류기호로는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였다. 교통도서관 분류표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철도도서관은 개관 당시 만철 소속의 도서관으로, 분류표 역시 만철에서 결정한 분류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철도도서관의 관리가 조선총독부로 바뀌었을 때에도 계속 사용하였으며, 해방 이후에는 새로운 분류표를 편찬하여 사용하였다. 철도도서관에서 사용한 분류표들은 모두 십진식 분류표였으며, 분류기호 역시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분류표에 대해서는 다음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2 변천과정

3.2.1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

철도도서관의 분류표로 가장 초기의 것으로 현존하는 것은 1920년에 작성된 주류별 대출도서수를 작성해둔 통계표¹⁰⁾이다. 이 통계표에는 주류만 나타나 있어 개관당시 만철경성도서관에 이미 분류표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을 뿐, 상세한 분류세목까지는 알 수 없다. 이후

9) 교통도서관 편, *op. cit.*, p.2.

10) 南滿洲鐵道株式會社 京城管理局, 統計年報(京城: 大正9年[1920]), p.222.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 35권 제 2호)

만철경성도서관은 1925년에 도서목록¹¹⁾을 발간하였으며, 이 도서목록에서 분류기호와 세부분류항목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도서목록에 나타난 분류표의 주류와 강목을 1920년 만철에서 통일·제정한 분류표의 분류강목과 비교해 보면, 주류는 매우 유사하나, 강목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1920년 만철에서 통일 제정한 이 분류표는 일본의 山口圖書館分類表의 주류와 매우 유사하다. 山口圖書館分類表는 초기에 帝國大學圖書館 및 東京帝大 分類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1919년 4월에 府懸立圖書館協議會에서 표준도서분류법으로 채용되었다.¹²⁾ 이 세 분류표의 주류를 비교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山口圖書館分類表와 滿鐵各圖書館圖書分類表와 滿鐵京城圖書館分類表의 주류비교

山口圖書館分類表		滿鐵各圖書館圖書分類表		滿鐵京城圖書館分類表	
000	총기	0	총기	0	총기
100	철학, 종교	一	철학, 종교	1	철학, 종교
200	교육	二	교육	2	교육
300	문학, 어학	三	문학	3	문학, 어학
400	역사, 전기, 지지, 기행	四	역사, 전기, 지지(地誌)	4	역사, 전기, 지지(地誌), 여행
500	법제, 경제, 재정, 사회, 통계	五	정치, 법률, 경제, 사회, 통계	5	법제, 정치, 법률, 법규, 경제, 재정, 통계, 사회, 풍속, 습관, 가정
600	수학, 이학, 공학	六	수학, 이학, 의학	6	이학, 의학
700	공학, 병사	七	공학, 병사	7	공학, 항해(航海), 병사(兵事)
800	미술, 제예	八	미술, 제예(諸藝)	8	미술, 음악, 제예(諸藝), 오락, 운동, 경기(競技), 무예
900	산업, 가정	九	산업, 가사	9	산업, 교통, 통신

이 세 분류표는 모두 십진식 분류표로, 주류에서는 거의 유사하다. 이 세 분류표 모두 인문과학분야에 3개, 사회과학분야에 2개, 예술분야에 1개, 자연과학 및 공학분야에 3개의 주류를 배정하고 있어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강의 단계에서는 山口圖書館分類表와 滿鐵各圖書館圖書分類表가 좀 더 유사하며,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山口圖書館分類表보다 滿鐵各圖書館圖書分類表와 일치하는 것이 더 많았다. 따라서 만철에서 만철산하의 각도서관에 대해 통일된 분류표를 제정할 때 주로 山口圖書館分類表를 참조한 것으로 보이며, 만철경성도서관의 분류표는 이 두 분류표를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두 분류표와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가 가장 다른 점은 07 朝鮮, 滿蒙이다. 07 아래의 목을 살펴보면, 070-079까지는 주류의 순서와 동일하게 배정되어 있다. 이것은 조선과 만주, 몽고와 관련된 자료를 07아래에 모두 모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993에 철도가 배정되어 있지만, 鮮滿鐵道 역시 0797에 배정하였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11) 滿鐵京城圖書館 編, 滿鐵京城圖書館圖書目錄(京城: 大正14年[1925])
 12) 加藤宗厚, 圖書分類法要說, 改訂增補版(東京: 理想社, 1961), pp.165-166.

<표 3> 주류와 07 조선의 조기성 비교

주류		07 朝鮮(含滿洲)	
0	총기	070	조선만주일반
1	철학, 종교	071	철학, 종교
2	교육	072	교육
3	문학, 어학	073	문학, 어학
4	역사, 전기, 지지(地誌), 여행	074	역사, 지리
5	법제, 정치, 법률, 법규, 경제, 재정, 통계, 사회, 풍속, 습관, 가정	075	법제, 경제, 통계, 사회, 풍속, 가정
6	이학, 의학	076	이학, 의학
7	공학, 항해(航海), 병사(兵事)	077	공학, 병사
8	미술, 음악, 제예(諸藝), 오락, 운동, 경기(競技), 무예	078	미술, 음악, 제예(諸藝), 오락
9	산업, 교통, 통신	079	산업, 교통, 통신

이 외에도 특히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가 강에서 많은 수정을 가한 부분은 3, 6이다. 3에서 다른 두 분류표는 세 개의 강(山口圖書館分類表는 370-390, 滿鐵各圖書館圖書分類表는 37-39)을 배정하였으나, 만철경성도서관은 34-38 다섯 개의 강을 배정하였다. 의학을 다른 두 분류표는 두개의 강에 배정하였으나,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는 다섯 개의 강에 배정하였다. 어학, 의학 부분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표 4> 山口圖書館分類表와 滿鐵各圖書館圖書分類表와 滿鐵京城圖書館分類表의 어학, 문학 비교

山口圖書館分類表		滿鐵各圖書館圖書分類表		滿鐵京城圖書館分類表	
370	어학	三七	어학, 국어	34	어학일반
380	국어	三八	支邦語	35	국어
				36	한어, 支邦語
390	외국어	三九	외국어	37	영어
				38	기타 각국어
680	의학	六八	의학	65	의학일반
				66	기초의학
				67	임상의학
				68	법의학
690	의학	六九	위생학, 약학	69	수의학

<표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 어학과 문학에 좀더 비중을 두고 상세히 구분하여, 山口圖書館分類表와 滿鐵各圖書館圖書分類表에 비해 항목설정이 매우 구체적이며 발전적인 것으로 보인다.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에서 특이한 점은 철도관련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철도는 993이라는 단 하나의 목에 배정하였다는 점이다.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가 일본의 군현립도서관에서 정한 표준분류표인 山口圖書館分類表를 주로 참조하였고, 특별히 철도에 하나의 목만을 배정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만철경성도서관은 철도 관련 장서만을 다룬 특수도서관의 성격만을 갖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선행 연구에서 이미 제시된 것¹³⁾으로, 분류표에서도 그러한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다.

3.2.2 철도도서관분류표

1925년도 조선국유철도가 만철의 위탁경영에서 해제되어 그 관리가 조선총독부로 이관되면서 만철경성도서관은 철도도서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이 당시 분류표로는 1929년에 발간된 분류목록과 1937년, 1947년에 발간된 분류목록에 있는 것이 현재까지 남아있다.

이 세 개 연도에 발간된 분류목록에 있는 분류표를 비교해 보면 주류에는 1925년에 발간된 만철경성도서관분류표와 동일하며, 강과 목단계의 분류항목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다. 그 중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인 것이 조선과 조선철도에 대한 것이다. 1925년까지는 조선과 만주와 관련된 자료는 07에 분류하였다. 07 이하의 목은 주류와 동일한 순서로 세분하여 조기성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세목으로 내려가면 그 조기성은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993이 철도이나 鮮滿鐵道는 0797에 있다. 1929년에는 이 鮮滿鐵道에서 조선철도가 09로 독립·신설되었다. 09 이하의 목은 993 철도의 세목과 그 순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거의 유사하여 조기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5>와 같다.

<표 5> 09 조선철도와 993 철도운송의 조기성 비교

09 조선철도		993 철도운송	
090	조선철도일반	9930	일반
091	조직, 직제, 행정	9931	철도행정, 정책조직
092	회계, 창고(倉庫)	9932	철도경제, 회계, 통계
093	여객, 화물	9933	여객, 화물
094	운전, 신호, 사고	9934	운전, 신호, 통신, 철도사고
095	공작(工作), 전기	9935	철도임률(鐵道賃率), 규칙
096	공무(工務), 건설	9936	철도업무, 교양
097	해운	9937	궤도, 경편(輕便), 사설철도
098	도로운송	9938	本邦鐵道事情
099	지방철도, 궤도(軌道)	9939	외국철도사정

13) 철도도서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김포옥, “철도도서관에 관한 고찰: 특히 일제하의 도서관봉사활동을 중심으로,” 도서관학논집, 제9집(1982), pp.63-81과 김정희, *op. cit.*를 참조.

1937년에 발간된 분류목록에 있는 분류표에서는 만주가 08로 독립하여 신설되었으며, 08 이하 목은 주류와 동일한 순서로 구분하여 조기성을 갖게 하였다. 08 만주의 분류항목을 주류와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표 6> 08 만주와 주류의 비교

08 만주		주류	
080	일반	0	총기
081	철학, 종교	1	철학, 종교
082	교육	2	교육
083	문학, 어학	3	문학, 어학
084	지지, 역사	4	역사, 전기, 지지(地誌), 여행
085	법제, 경제, 통계 사회, 풍속, 가정	5	법제, 정치, 법률, 법규, 경제, 재정, 통계, 사회, 풍속, 습관, 가정
086	이학, 의학	6	이학, 의학
087	공학, 병사	7	공학, 항해(航海), 병사(兵事)
088	미술, 음악, 제예(諸藝), 오락, 운동, 경기(競技)	8	미술, 음악, 제예(諸藝), 오락, 운동, 경기(競技), 무예
089	산업, 교통, 통신	9	산업, 교통, 통신

그러나 이 역시 세목에서는 만철이 0897에 배정 되는 등 그 조기성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로써 0797은 鮮滿鐵道가 09로 독립하여 교통에서 통신으로 개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1941년에 발간된 분류목록과 1937년에 발간된 분류목록에 있는 분류표는 동일하므로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7> 조선 및 만주 관련 항목 변천과정

연도 \ 분류기호	1925	1929	1937
07	朝鮮, 滿蒙	朝鮮, 滿蒙	朝鮮
0797	交通(鮮滿鐵道)	交通	通信
08	幼年用圖書	幼年用圖書	滿洲
0897	.	.	滿鐵
09	.	朝鮮鐵道	朝鮮鐵道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29년까지 08은 유년용도서를 위해 사용되었으나, 1937년에 만주항목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23년에 신설하여 운영하던 아동도서관이 1928년에 폐지됨¹⁴⁾으로 인해 이 항목을 만주항목으로 변경하여 독립시킨 것으로 추정된

14) 철도청, *op. cit.*, p.282.

다. 또한 09는 1925년에는 공기호(gap notation)이었으나, 1929년부터 조선철도를 배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선 및 만주와 관련된 분류항목에서의 변화는 철도도서관이 조선 및 만주철도는 물론 이 두 지역에 대해 비중을 점차 크게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철도도서관분류표에서 발견되는 특징은 조기성을 위한 보조표는 없지만, 조기성을 지키려고 노력한 흔적이 분류표 곳곳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제시한 조선과 만주 관련 항목이며, 이 외에도 3 문학, 어학에서 35 국어, 36 漢語, 37 영어에서 조기성이 나타난다. 이 세 언어의 분류기호 세 번째 자리에서 1은 史傳을, 2는 辭書를, 3은 文典을 각각 나타낸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표 8>과 같다.

<표 8> 철도도서관분류표에 나타난 조기성의 예

35 국어	36 漢語	37 영어
351 史傳	361 史傳	371 史傳
352 辭書	362 辭書	372 辭書
353 文典	363 文典	373 文典

철도도서관분류표는 필요에 따라서 분류항목을 수정해 온 듯 하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조선 및 만주관련 항목을 제외하고는 크게 변경하지는 않았다. 또한 분류목록이 편찬된 연도를 보면 1925년, 1929년, 1937년, 1941년으로 4년을 주기로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1933년 분류목록이 전해지지 않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이후 철도도서관은 해방을 맞아 그 명칭과 더불어 새로운 분류표를 작성하였다.

3.2.3 교통도서관분류표

해방 후 군정과 과도정부 당시 철도도서관이 사용한 분류표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정부수립 이후에는 새로운 분류표를 작성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교통도서관이 새로운 분류표를 편찬한 이유와 편찬연도는 알 수 없으나, 그 분류표는 1949년에 발간한 것이 현재 전해진다. 그러나 <표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1947년까지의 분류별 장서통계가 철도도서관 분류표의 주류별로 작성되었고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그 명칭을 변경하고 그 다음해에 발간한 자료에 새로이 작성된 분류표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1948년과 1949년 사이에 새로운 분류표가 편찬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분류표는 박봉석 조선십진분류표의 第二表와 第三表를 절충하여 작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모든 분류표가 십진분류이며, 분류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는 순수기호를 채

택하고 있다. 또한 분류표는 주류 十門으로부터 綱目, 要目, 細目으로 四位의 숫자까지 세분하고 있으나, 개개 도서의 분류는 細目 또는 細細目的 기호를 주어서 결정한다.¹⁵⁾ 분류표에 서는 세목까지만 제시하고 있다.

이 분류표는 네 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一表 專用備付巡回文庫備付用分類表는 순회 문고와 철도국 각과, 지방철도국, 사무소 등에 비치된 도서를 분류하기 위한 것이다. 第二表 本館備付用分類表는 교통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를 분류하기 위한 것이며, 아동용문고를 분류하기 위한 第三表 兒童圖書分類表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相關件名索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 가지 분류표는 주류에서는 동일하며, 第一表와 第三表는 강목단계까지만 있다. 특히 第一表는 第二表의 강목과 거의 동일하므로, 철도도서관보다 장서량이 적은 소규모 도서관용 분류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第三表는 아동도서용으로 第一表와 第二表의 강목에서 아동도서의 특징을 살린 항목들로 변화한 부분들이 많다. 대표적인 것으로, 1류 철학·종교에서 11 화랑정신, 14 국민도덕·애국심, 그리고 3류 문학·어학에서 32 독본·과외독본, 33 작문·문집·尺牘과 36-37은 문학의 각 형식별로 분류기호를 배정하고 있다. 4류 미술·연예에서는 44 화집·명화해설, 45 그림책, 그리고 5류 사회·교육에서 56 전과학습서, 57 수험집·문제집, 58 소년단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교통도서관분류표의 주류는 조선십진분류표의 주류와 동일하다. 일제강점기 당시 철도도서관분류표와는 단지 0류 총류와 1류 철학·종교, 3류 어학·문학이 동일할 뿐 주류이하는 매우 상이하여, 분류표에서는 철도도서관과의 연계성을 찾기 어렵다. 철도도서관분류표와 교통도서관 분류표, 조선십진분류표의 주류를 비교하면 <표 9>와 같다.

<표 9> 鐵道圖書館分類表와 交通圖書館圖書分類表, 朝鮮十進分類表의 주류비교

분류표 분류기호	鐵道圖書館分類表	交通圖書館圖書分類表	朝鮮十進分類表
0	총기	총류	총류
1	철학, 종교	철학, 종교	철학, 종교
2	교육	역사, 지지	역사, 지지
3	문학, 어학	어학, 문학	어학, 문학
4	역사, 전기, 지지(地誌), 여행	미술, 연예·	미술, 연예·
5	법제, 정치, 법률, 법규, 경제, 재정, 통계, 사회, 풍속, 습관, 가정	사회, 교육	사회, 교육
6	이학, 의학	정법, 경제	정법, 경제
7	공학, 항해(航海), 병사(兵事)	이학, 의학	이학, 의학
8	미술, 음악, 제예(諸藝), 오락, 운동, 경기(競技), 무예	공학, 공업	공학, 공업
9	산업, 교통, 통신	산업, 교통	산업, 교통

15) 교통도서관 편, *op. cit.*, p.2.

<표 9>에서 나타난 것처럼, 철도도서관분류표와 교통도서관분류표는 주류에서만 보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분류표임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철도도서관분류표에서 독립된 류인 2 교육이 5 사회와 합쳐졌으며, 문학·어학과 역사·지지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그리고 미술, 음악 등의 예술과 관련된 항목이 8류에서 4류로 순서가 바뀌었다. 주류의 배열에서는 인문과학에 3개, 사회과학에 2개, 예술분야에 1개, 자연과학 및 공학에 3개를 배정해 이전의 철도도서관분류표와 동일하게 배분하였다.

교통도서관분류표는 조선십진분류표와 주류에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강목 및 요목에서도 거의 조선십진분류표와 동일하다. 0류 총류부터 6류 정법, 경제까지는 조선십진분류법 第二表와 동일하며, 7류부터 9류까지는 第三表와 동일하다. 다른 점은 351 문학이론에서 조선십진분류표에 있던 수사학이 제외되었고, 556 數學科와 558 體育保健科는 조선십진분류표에서는 서로 번호가 뒤바뀌었다(조선십진분류표에서는 556이 체육보건과, 558이 수학과). 그리고 6류에서도 69 국방·군사의 하위 목(目)과 691 군비·군정의 세목, 699 각국군사사정의 세목은 조선십진분류표 第三表를 채택하였으며, 第三表를 채택한 7류에서 712 대수학의 세목에서는 조선십진분류법의 7120 대수학, 7128 기타 각론, 7129 고등대수 이 세 개의 세목만 채택하였다.

7류 이학·의학, 8류 공학·공업, 9류 산업·교통을 대도서관분류표인 조선십진분류표 第三表를 채택한 것은 교통도서관의 장서 특성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 <표 10>에 나타난 1946년과 1947년 교통도서관분류별장서통계표¹⁶⁾를 보면, 8류에 해당하는 7 공학·병사의 장서량이 다른 류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교통도서관 장서 중에서 교통운수관계 및 공학계통의 도서가 상당히 충실했음¹⁷⁾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7류에 해당하는 6 이학·수학·의학의 경우는 장서량은 3 문학·어학, 8 미술·음악·운동에 비해 적으나, 교통도서관의 장차 장서증가량을 고려해 조선십진분류표의 第三表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표 10> 1946/47년 교통도서관 분류별 장서통계표

주류 연도	0 총류	1 철학, 종교	2 교육	3 문학, 어학	4 역사, 전기, 지지, 여행	5 정치, 법률, 사회, 풍속	6 이학, 수학, 의학	7 공학, 병사	8 미술, 음악, 운동	9 산업, 교통, 통신
1946	4674	9326	14225	29605	19567	19865	14465	68805	39851	14615
1947	4915	9632	14423	34340	19763	20753	14504	68928	39943	14660

16) *Ibid*, p.129.

이 통계표에 나타난 주류는 일제강점기 당시 사용하던 철도도서관의 분류표의 주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따라서 교통도서관에서 새로이 제정한 분류표와는 주류의 순서가 다를 수 있다.

17) *Ibid*, p.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방 후 교통도서관은 정부수립과 함께 일제강점기 당시의 분류표 대신에 새로운 분류표를 편찬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분류표는 당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국인에 의해 만들어진 박봉석의 조선십진분류표를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만철산하도서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의 비교분석

철도도서관이 개관하여 1925년 총독부 관할로 이전되기까지 만철의 관할 하에 있었다는 것은 앞선 역사부분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만철 산하에는 철도도서관 이외에도 1926년 당시 31개의 도서관이 있었으며, 이 도서관 중에는 현재까지 그 분류목록이 전해지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철도도서관은 개관당시 만든 분류표를 해방이전까지 큰 변화 없이 사용하였으므로, 이들 만철산하도서관이 사용한 분류표와 철도도서관이 사용한 분류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철도도서관분류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4.1 만철산하도서관분류표의 특징

현재 만철산하도서관 분류표를 찾아 볼 수 있는 것은 앞서 언급한 만철각도서관도서관분류표와 만철다렌도서관분류표이다. 만철각도서관분류표의 경우 주류와 강까지만 나타나 있으며, 만철다렌도서관은 분류목록이 있다.

만철각도서관분류표의 경우 총기의 경우에 아라비아숫자 0으로 표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류기호를 한자로 표기하고 있다. 즉 一, 二와 같이 표기하였다. 이 분류표 역시 십진식이며 주류의 배열은 앞선 3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나 만철각도서관분류표는 0 총기의 분류기호의 표기에서 약간의 오류를 범한 듯 하다. 즉 총기가 0이면 그 이하 강의 전개는 0一, 0二, 0三...0九이어야 하나, 앞의 0을 생략하고 一, 二...九로만 표기함으로 다른 주류의 분류기호와 중복하여 표기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록 분류표와는 다르나 총기의 강단계를 언급할 경우에는 기호에 0을 부기하여 표기하였다.

만철다렌도서관은 만철의 기점인 다렌(大蓮)에 大正7年(1918년) 1월 15일에 설립하였다.¹⁸⁾ 그러나 그 분류표는 언제 편찬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존된 분류목록에 그

18) 滿鐵管理局 編, *op. cit.*, p.3.

분류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유로 만철다렌도서관분류표 역시 분류목록에 제시된 분류표를 기반으로 하여 기술하였다.

지금까지 보존된 만철다렌도서관분류목록은 소화6년(1931년)과 소화8년(1933년)에 발간한 소화2년(1927년) 현재 장서분류목록 일부가 있다. 또한 소화12년(1937년)에 발간한 소화2년에서 소화11년(1936년) 현재 장서분류목록 일부와 소화16년(1941년)에 발간한 소화14년(1939년) 현재 장서분류목록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화17년(1942년)에 발간한 소화15년(1940년) 현재 장서분류목록이 전해진다. 이러한 분류목록에 나타난 분류표를 근거로 다렌도서관분류표의 특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만철다렌도서관분류표는 철도도서관분류표와 마찬가지로 십진식이며, 분류기호 역시 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만주항목에 한해서는 1933년까지는 07기호를 사용하였으나, 1934년부터는 만주항목에는 07대신 알파벳 M을 사용하였다. 주류의 분류기호는 한자리이며, 철도도서관분류기호와 마찬가지로 자리수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기호는 사용하지 않았다. 분류기호가 세자리를 넘어서면 DDC와 KDC처럼 세 번째 분류기호 다음에 점을 찍고 네 번째 분류기호를 부기하였다. 만철다렌도서관분류표는 철도도서관분류표와 마찬가지로 보조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연대별 분류목록을 비교해본 결과 만철다렌도서관은 거의 분류표를 수정하지 않고 동일한 분류표를 계속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주류는 물론 강, 목, 세목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만주항목에 대해서는 분류기호를 1934년부터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분류항목은 변경하는 것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만철다렌도서관분류표는 양서를 위한 분류표를 따로 마련하여 사용하였다. 이 양서분류표 역시 십진식이나 분류기호는 A부터 J까지 알파벳 10개를 사용하였다. A부터 I까지의 주류는 화한서(和漢書)분류표와 동일하다. 그러나 I에 8, 9門에 있던 산업, 교통·통신을 통합하여 배정하였고, J에 극동지역의 자료를 집중해서 분류할 수 있도록 Far East 항목을 배정하였다. 이 J의 분류강목은 주류와 동일하다. 단지 J9는 극동지역의 문제(Far Eastern Question)를 배정하였다. 만철다렌도서관분류표의 화한서(和漢書) 및 양서분류표와 J Far East의 분류항목을 비교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만철다렌도서관 화한·양서분류표와 J 항목의 비교

만철다렌도서관화한서분류표		만철다렌도서관양서분류표		J Far East	
M	만주몽고	A	Generalia	J0	Generalia
0	총기				
1	종교, 철학, 교육	B	Religion, Philosophy, Education	J1	Religion, Philosophy, Education
2	문학, 어학	C	Literature, Philology	J2	Literature, Philology
3	역사, 전기, 지지	D	History, Geography	J3	History, Geography
4	정치, 법률, 경제, 재정	E	Law, Economics	J4	Politics, Law, Economics
5	사회, 풍속, 가사, 통계, 식민	F	Sociology	J5	Sociology
6	수학, 이학, 의학	G	Science	J6	Science
7	공학, 병사, 미술, 음악, 연예, 운동	H	Engineering	J7	Engineering, Arts
8	산업	I	Industry, Communication	J8	Industry, Communication
9	교통, 통신	J	Far East	J9	Far Eastern Question

<표 1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만철다렌도서관분류표는 보조표는 없으나 대체로 조기성을 지키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4.2 만철각도서관분류표와 만철다렌도서관 및 철도도서관분류표의 비교

철도도서관이 만철 관할에 있었던 시기가 설립에서부터 1925년까지이며, 해방 이전까지는 조선, 만주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변경 없이 분류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만철다렌도서관 역시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1927년부터 1942년까지 변경 없이 분류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철에서 통일·제정한 만철각도서관도서관분류표는 두 도서관이 모두 만철산하에 있었던 관계로 이 두 도서관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연대는 차이가 나지만, 이 세 분류표를 비교해 봄으로써 좀 더 철도도서관분류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주류의 배열은 앞서 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철각도서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가 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철다렌도서관의 경우에는 이 두 분류표와 주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만철각도서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에서는 2에 독립되었던 교육이 만철다렌도서관에서는 1 종교, 철학, 교육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나 만철각도서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에서는 5에 함께 있던 법제, 정치, 법률, 법규, 경제, 재정, 통계, 사회, 풍속, 습관, 가정이 만철다렌도서관에서는 4, 5로 나누었다. 그리고 만철각도서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에서는 7과 8에 배정하였던 공학, 병사, 미술, 음악, 연예, 운동도 만철다렌도서관에서는 7에 통합하였다. 또한 만철각도서관분류표와 철도도서관에서는 9에 산업, 교통, 통신이

함께 있었으나 만철다렌도서관에서는 산업을 8로 독립·배정하였다.

그리고 만철각도서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는 조선과 만주관련 항목을 0 총기의 강목 단계로 전개하였으나, 만철다렌도서관의 경우에는 알파벳문자를 사용하여 독립된 분류기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철도도서관과 만철다렌도서관 분류표 모두 이들 항목의 강목에 대해서는 주류의 배열과 동일하게 전개하였다. 그러나 만철각도서관분류표의 경우 강단계까지만 전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만철다렌도서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의 주류를 비교하면 <표 12>와 같다. 만철각도서관분류표의 주류는 앞서 <표 2>에서 제시하였고, 철도도서관분류표의 주류와 거의 동일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였다.

<표 12> 만철다렌도서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의 주류비교

만철다렌도서관분류표		철도도서관분류표	
M	만주몽고	0	총기
0	총기		
1	종교, 철학, 교육	1	철학, 종교
2	문학, 어학	2	교육
3	역사, 전기, 지지	3	문학, 어학
4	정치, 법률, 경제, 재정	4	역사, 전기, 지지(地誌), 여행
5	사회, 풍속, 가사, 통계, 식민	5	법제, 정치, 법률, 법규, 경제, 재정, 통계, 사회, 풍속, 습관, 가정
6	수학, 이학, 의학	6	이학, 수학, 의학
7	공학, 병사, 미술, 음악, 연예, 운동	7	공학, 병사
8	산업	8	미술, 음악, 제예(諸藝), 오락, 운동, 경기(競技), 무예
9	교통, 통신	9	산업, 교통, 통신

이렇게 주류에서 나타난 세 분류표의 차이는 주류이하의 단계의 전개에서도 역시 차이를 보였다.

0 총기의 강목에서는 세 분류표가 동일하게 전개되었다. 단지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철도도서관에서는 07과 08, 09에 조선, 만주, 조선철도가 있으나, 만철다렌도서관의 경우 이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만주몽고는 M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조선관련항목은 각 주제별로 분산시켰다. 1933년까지 만철다렌도서관이 07에 만주몽고관련 항목을 배정한 것은 만철각도서관분류표에서 07에 만주몽고가 배정된 것을 그대로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철학, 종교에서 철도도서관분류표는 철학, 종교이고 만철다렌도서관분류표는 종교, 철학이다. 따라서 강목의 전개에서도 철도도서관은 철학관련 항목이 먼저 전개되고 종교관련 항목

이 이후에 전개된 반면, 만철도서관은 이와 반대로 전개하였다. 강목의 항목은 순서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항목들은 동일하였다. 그러나 만철각도서관분류표의 경우 분류항목이 철학, 종교로 철도도서관과 동일하지만, 강의 전개에서는 만철다렌도서관과 거의 동일하게 전개하였다. 그리고 만철다렌도서관의 경우 만철각도서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에서는 3에 있던 교육을 19에 전개하였다.

문학, 어학에서는 만철각도서관분류표와 만철다렌도서관분류표의 경우 외국어를 한 개의 강에 배정한 반면, 철도도서관의 경우 이를 세 개 강에 나누어 배정함으로써 좀 더 외국어를 상세히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만철다렌도서관의 경우에는 21 일본문학이 있어 22의 국문학과 함께 자국(일본)문학에 좀 더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이며, 문학의 한 형식인 소설과 희곡을 25에 배정한 것으로 보아 철도도서관에 비해 문학을 좀 더 상세히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만철다렌도서관이 만철각도서관분류표의 체제를 그대로 따라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 전기, 지지에서는 만철각도서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에서는 한 개의 강에만 배정하였던 서양사가 만철다렌도서관에서는 2개의 강에 차지함으로써 좀 더 비중을 크게 둔 것으로 보인다.

정치, 법률, 경제, 재정에서는 만철각도서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의 경우 만철다렌도서관에서는 5에 독립시킨 통계, 사회, 풍속, 가정을 4에 통합시켜 전개하였다. 반면 만철다렌도서관의 경우는 4와 5로 분리시킴으로써 이 두 항목에 대해서 두 분류표에 비해서는 좀 더 비중을 크게 둔 것으로 보인다.

수학, 이학, 의학에서는 만철각도서관분류표는 한개의 강을, 만철다렌도서관이 의학에 대해 두개의 강을 배정한 반면, 철도도서관의 경우 4개의 강을 배정하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철도도서관의 경우 의학에 좀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철다렌도서관에서는 목 단계에 전개한 물리, 화학과 천문, 지문학(地文學)을 만철각도서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는 강단계에 배정하여 이학부분에도 더 많은 비중을 두었다. 수학, 이학, 의학에서는 세 분류표간에 유사성을 구분지을 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학, 병사, 미술, 음악, 연예, 운동의 경우 만철각도서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에서는 7, 8에 나누어 전개한 것을 만철다렌도서관에서는 하나의 강에 합쳐 전개하였다. 그러나 공학, 병사의 경우에는 만철각도서관분류표 및 철도도서관분류표와 동일하게 배정하여 두 도서관이 이 주제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비중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미술, 음악, 연예, 운동의 경우에는 만철다렌도서관분류표의 분류항목이 적어 다른 두 분류표가 좀 더 상세히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만철각도서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는 공학, 병사의 강전개를 동일하게 하였다. 만철각도서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의 미술, 제예(諸藝)의 강전개는 순서만 약간 다를 뿐 동일하다.

산업, 교통·통신에서는 산업의 경우 만철다렌도서관이 독립된 항목으로 배정하여 그 비중

이 클 것으로 보이나, 만철각도서관분류표는 九七에 교통·통신을, 철도도서관분류표는 99에 교통, 통신, 철도를 한꺼번에 배정함으로써 산업에 한해서는 세 분류표가 거의 유사하게 전개함과 동시에 그 비중도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통·통신의 경우 만철다렌도서관에서는 하나의 강에 전개하였으나, 만철각도서관분류표와 철도도서관분류표에서는 하나의 목에 전개함으로써 만철다렌도서관이 이 부분에서는 더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세 분류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만철에서 1920년에 통일·제정한 분류표는 비록 각 도서관을 관할하는 만철에서 정하였지만, 철도도서관과 만철다렌도서관은 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도서관의 실정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철도도서관은 도서관이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에서 6.25로 소실되기 전까지의 도서관활동에 비해서 도서관계의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그 기록마저 온전히 보존되지 못하여 완전히 그 실체를 밝히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철도도서관의 분류표에서도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미흡한 점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자료로 철도도서관분류표를 살펴본 결과 관련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그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철도도서관 분류표의 최초 편찬연도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920년 개관 당시 만철에서 만철 산하의 각 도서관에서 사용하도록 제정·통일한 분류표와 山口圖書館分類表를 참조하여 자관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② 이것은 만철에서 통일·제정한 만철각도서관분류표와 남만주철도주식회사 관할에 있던 다렌도서관분류표, 철도도서관분류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만철다렌도서관분류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만철산하의 도서관들은 만철에서 통일·제정한 분류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관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③ 일제 강점기 당시 철도도서관은 분류표를 필요에 따라 부분 수정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과 만주 관련 항목의 경우에는 자관의 실정에 맞도록 분류항목을 신설·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 ④ 해방 후 철도도서관은 군정과 과도정부 당시 까지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분류표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정부 수립 후 그 명칭의 변경과 함께 분류표 역시 새로 편찬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 ⑤ 해방 후 철도도서관분류표의 정확한 편찬 연도와 경위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편찬연도는 1948년에서 1949년 사이로 추정되며, 편찬 경위는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식민시대 당시의 분류표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 ⑥ 또한 해방 후 철도도서관 분류표는 박봉석의 조선십진분류표를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⑦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그 관할에 있던 여러 도서관들을 위해 분류표를 통일·제정하였으나, 만철산하의 도서관들은 그 분류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관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철도도서관분류표는 아직 일제강점기 당시 사용하던 분류표가 입수되지 못한 관계로 완벽한 사실들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자료조사 더불어 이와 관련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 우리나라 도서관사에 부족한 기록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통도서관. **교통도서관안내**. 서울 : 교통도서관, 단기4282[1949].
- 김남석. **일제하 공공도서관의 사회교육활동**. 대구 : 계명대학교출판부, 1991.
- 김세익. **도서, 인쇄, 도서관사**. 서울 : 종로서적, 1984.
- 김정의. 일제하의 철도도서관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1984).
- 김포옥. “철도도서관에 관한 고찰 : 특히 일제하의 도서관봉사활동을 중심으로.” **도서관학논집**, 제9집(1982), pp.63-81.
- 박봉석. **조선십진분류표**. 서울 : 국립도서관, 단기4280[1947].
-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編. **서울六百年史**. 第四卷. 서울 : 1981.
- 오동근. **DDC 연구**. 대구: 태일사, 2002.
- 철도청. **한국철도100년사**. 대전 : 철도청, 1999.
- 古野健雄. “終戰前後の朝鮮鐵道圖書館.” **圖書館雜誌**, 第59卷, 第8號(1965), pp.49-51
- 加藤宗厚. **圖書分類法要說**. 改訂增補版. 東京 : 理想社, 1961.
- 南滿洲鐵道株式會社京城管理局. **統計年報**. 京城, 大正9年[1920], 大正10年[1921], 大正12年[1923], 大正14年[1925], 昭和元年[1926], 昭和2年[1927], 昭和5年[1930], 昭和6年[1931].

- 大連圖書館. 大連圖書館和漢圖書分類目錄. 大連, 昭和6年昭[1931], 昭和9年[1934], 昭和12年[1937].
- 大連圖書館. 滿鐵大連圖書館增加圖書分類目錄. 大連, 昭和12年[1938], 昭和16年[1941], 昭和17年[1942].
- 滿鐵管理局 編. 滿鐵圖書館概況. 大連 : 昭和12年[1937].
- 滿鐵京城圖書館 編. 滿鐵京城圖書館圖書目錄. 京城 : 大正14年[1925].
- 鐵道圖書館 編. 藏書目錄. 京城 : 1929.
- 鐵道圖書館 編. 鐵道圖書館藏書目錄. 京城 : 昭和12年[1937].
- 鐵道圖書館 編. 鐵道圖書館藏書目錄 : 技術關係之部. 京城 : 昭和16年[1941].